

●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, 말하기는 더디 하고 분노하기도 더디 해야 합니다. (야고보서 1장 19절)

대화의 고수가 되는 바람직한 경청의 자세

“인간의 입은 하나, 귀는 둘이다. 이것은 듣기를 배로 하라는 것이다.”

----- 탈무드

말을 하되 듣기를 더 즐겨하라. 이런 사람이 대화의 귀재이다.

많은 사람들이 좋은 첫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정중하게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. 傾聽이 소통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알게 한다. 통하는 대화를 하라. 그것은 곧 경청하는 것이다.